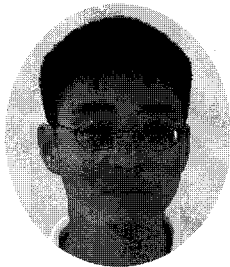


먼저 우리 농업을 알자



상호간 견제·감시·비판하며 농업계 성역 없애야



윤덕한
디지털농업 기자

‘먼저 우리 농업을 알자’ 라는 제목의 글을 부탁받았다. 물론 ‘한국농업개론’이나 ‘농학원론’을 설명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현실을 똑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 농업철학을 새롭게 하자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못 내기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풀어놓기에는 너무 큰 담론이기는 하나 감히 몇 자 적어본다.

이 글을 쓰는 이 사람도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일선 농협의 지도계를 거쳐 지금은 농업전문지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농대 정원이 많은가’ 하는 점이다. 농고생 수보다도 농대생 수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 말고 또 있을까.

1980년대 중반 대학을 다녔는데 당시 농대 정원이 공대 다음으로 많은 6백명 이었다. 우리과인 농학과만 하더라도 한 학년에 52명이었다. 전국농학과체육대회를 가보니 20여개가 넘는 대학이 있었다. 졸업정원제 시절이었는데도 해마다 1천여명이

상의 농학과 졸업생들이 배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다. 동기들을 예로 들면 쥐꼬리 만큼이라도 농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15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정도면 대단히 양호한 경우라 한다. “다른 단과대학도 전공을 이어가지 못하는 예는 마찬가지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장(死藏)되는 전문 농업 교육에 대한 변명은 되지 못할 것이다.

학생들은 장래에 자신이 할 일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 좀더 솔직히 절반 이상은 점수에 맞춰 농과대에 들어온 학생들일 것이다. 또 농과대에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며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 한다. 배움에 열중하기가 쉽지 않다. 교수님들도 상황을 다 안다. 그렇다고 수업을 안할 수는 없다. 서글픈 현실이다.

물론 교수님들도 생활인이다.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원만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전 농업이 중요산업일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지금의 교수님들이 그때 교육받으신 분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쪽 인력 수요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농대 정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실망스러운 것은 이 뿐이 아니다. 농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농민과 농업관계자들의 삶이 고단해진다면 누군가 앞장서서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그들을 변호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활동영역을 개발하고 전공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배운 사람, 앞선 사람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 역할의 책임자는 바

로 다름 아닌 많은 농과대 교수님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교수님들의 대외활동 부재(?) 등이 대변해 줄 뿐이다.

게다가 수십년 된 향문사 교과서 읽어내는 것이 수업의 주라면 안쓰러운 일이다. ‘석사는 교양교육’이라며 대책 없는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고 행정고시, 기술고시 공부 안 한다고 호통친다. 친환경농업·농업공동체 운동하겠다는 녀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 하면 ‘약장사’냐고 힐난한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은 ‘의대·법대 보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농과대인가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교수 한 분을 만났다. 학회 세미나에 스폰서 부탁하러 오셨단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제자들을 다그치고, 권위적이셨던 그분이 맞나 의심스러웠다. 너무도 나약한 모습이 민망했다.

다른 한 교수님은 몇해 전 경북 상주의 한 농민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그 농업인은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보려고 무지 애쓰고 있었는데 농가를 방문한 교수님께서서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나라 포도주로 어떻게 최고 품질의 외국산 포도주를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나 나는 안다. 진정 그만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분 말대로 라면 우리 나라에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수는 꼭 필요한가?

비단 교수님들만이 아니다.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한 농업관련 기관장에게 원고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다. 그런데 비서실장 대답

은 “농업전문지에는 글을 안쓰신다” 였다. “바빠서 못쓴다”가 아니었다. 그분은 농업경제 전문가로 1990년대 초반 농민신문에 글을 연재하다시피 하며 필명을 날렸었다. 또한 그런 글을 묶어 책을 내기도 했다. 어쩌면 그분이 장관직에 오르는 데는 농업 전문지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지도 모른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는 … 그래서 안 된다.

최근 농업통상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그런데 건건이 농민들에게 패배감만을 안겨주는 것 같아 면구스럽다. WTO쌀 개방에서부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중국과의 마늘 협상, 칠레와의 FTA협정, DDA(도하 개발 아젠다)까지 어느것 하나 우리 뜻대로 되거나 되는 것이 없다. 요즘에는 국내의 비농업부분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문제는 농업계의 정책집행과 여론형성 과정이다. 우선 농림부는 농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농업언론은 농림부와 학계의 말을 인용해 우리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은 힘에 밀려 대폭 양보하고 만다. 농업언론들은 ‘이제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농림부는 사태무마용으로 이미 편성됐던 예산에서 이리저리 돈을 끌어 모아 최소봉대한 대책

을 발표한다. 그리곤 끝이다. 아무도 사후 검증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가는 또 다른 일이 터져 기억에서 떨어진다.

두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우리 논리의 타당성을 농업계 내부에서만 주장하지 말고 비농업부분을 설득시키라는 것이다. 우리끼리 “미국놈들 깡패” “누구누구 나쁜 놈” 해보아야 소용없다. 옳은 이야기를 주장하고도 판정에서 지고 온다면 ‘바보’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힘에 밀렸다는 변명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가 대단히 정교하고,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살길을 찾아야지 잠시 격분하다가 이내 수그러드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다듬는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바로 농업계의 지식인들, 고위 공직자, 교수, 연구원, 농민단체 정책팀들이다.

월급쟁이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둘째는 진정으로 농업의 장래를 생각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장된 대책은 일반인들의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다. “마늘

농민들 데모한다고 피같은 세금 1조8천억원이나 주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식이다. 농업인들이 자살하고 아스팔트에 드러눕기 전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닥치면 하루 아침

월급 받는 사람들의 자기역할 여부가 농업회생 관련 온 바른 방향 강하게 주장하고 막연한 기대심리 버려야



에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행정체계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희망은 농민 스스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업소득으로 사는 농민들 말고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 즉, 교수나 농림관료, 전문지 기자, 심지어 농민단체 간부들까지도 궁극적인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농민보다는 자신의 윤택한 삶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 농업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월급쟁이들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관찰하고 격려하고 견제하고 다그치는 것만이 현실적인 농업문제의 해법일 것이다.

얼마전 이 문제에 대해 실마리를 찾았다. 세상에 쌀 MMA 물량이 당초와 달라진 것이다. 올해 도입량이 당초 16만4천t에서 17만1천t으로 바뀐 것이다(디지털 농업 9월호에 게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부가 WTO협상 기준년도를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의무수입량을 덜 수입했는데 미국, 중국 등이 가만있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숫자를 바로잡는 일을 쉬쉬하며 몰래 해치우려 하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비슷한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도 말이다. 농업정책과 언론이 이렇게 엉망이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기억하고, 비교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에 분노하지 못한 우리들에 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뭔가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가. 맞다.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다. 철저히 검증하고, 옳은 소리로 못매질을 하면 월급쟁이들도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할 것이다. 농업계 내부에선 성역을 두지 않고 지독하리 만치 서로를 견제, 감시, 비판하며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농업을 대변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대선(大選)이 코 앞인데 농민 표 다 떨어지는 짓은 하지 않겠지” 하며 천진난만하게 정치권의 선심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마음이야말로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 적(敵)인 것이다. **농약정보**

